신흥사·낙산사 등 설맞이 자비나눔 잇달아

신흥사, 속초시에 2억 원 쾌척
낙산사, 양양군에 1억5천만 원

속초·양양=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신흥사는 1월 16일 속초시청에 저소득층을 위해 2억 원을 전달했다.



낙산사는 1월 17일 양양군청에 1억 5000만 원 상당 물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설을 기원했다.

속초 신흥사와 양양 낙산사 등 3교구 사찰 주최로 자비나눔 행사가 잇달아 열려 지역 소외계층들에게 훈훈함을 전했다.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강원도 속초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자비나눔 성금 전달식'에서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속초시 관내 저소득계층에게 써달라며 2억 원을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기탁했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자비나눔을 지속 실천해 온 신흥사의 이번 성금 전달은 최대 규모로 손꼽힌다.

이 자리에서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생각하며 부처님의 자비실천을 하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우리 신흥사 대중스님들 모두가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드리고 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 스님은 "부처님의 대자비가 온 세상에 펼쳐지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행복한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병선 속초시장도 "우리 속초 시민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귀중한 설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이를 계기로 속초시민들과 함께 소통 화합하고 또한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타의 마음으로 자신보다는 남을 더 위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매진해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함께 참석한 김종명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장도 "무산 오현 스님이 계실 때부터 매번 신흥사가 앞장서 저희들까지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속초시는 이번 신흥사의 자비나눔 2억 원 기탁으로 관내 저소득세대 1천 세대에 김세트를, 독거어르신 1540가구에 명절 위로금 5만 원씩을 각각 전달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시설 14곳에 노트북을,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를 통해 관내 경로당 95곳에는 무선청소기를, 다문화가족을 위해 속초시가족센터에 3천만 원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흥사는 매년 자비 나눔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후원품을 전달해 왔다. 속초시 취약계층에게는 5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부하는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문화재 환수기금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금 2억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쾌척한 바 있다.

양양 낙산사의 '설맞이 자비나눔'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낙산사 주지 청현 스님 등은 1월 17일 오전 10시 양양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돕기 위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김진하 양양군수 등에게 전달했다.

낙산사는 이번 계묘년 설을 맞아 차상위계층 723세대에 3천만 원 후원을 시작으로 대한적십자사 양양지구협의회, 양양군사회복지협의회, 양양군의용소방대, 양양군자율방범대, 양양군새마을부녀회, 양양소방서, 환경미화원, 군 장병 등에게 텀블러, 과일, 김세트, 컵라면, 햇반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했다.

낙산사 주지 청현 스님은 "낙산사의 설맞이 자비나눔은 은사이신 설악 무산 대종사께서 생전에 강조하신 주변 어른들과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항상 내 가족같이 보살피고 함께 나누라는 가르침을 받들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등 앞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돼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년에 비해 지원 규모를 더 늘렸다"고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도 "우리 관내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인 낙산사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종교를 떠나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찰"이라며 "오늘 후원해 주신 그 뜻을 잘 받들어 우리 지역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운 설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오후에는 육군 제56보병사단 호국백운사에 군법당 불사 지원금 1000만 원과 속초경찰서 직원 자녀 장학회인 무궁화 장학회에 5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우수 녹색사찰 선정

불교환경연대, 1월 11일 시상식
부산 도림사, 울산 벽련사도 선정

안양 한마음선원이 불교환경연대가 시상하는 2022년 우수 녹색사찰로 선정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1월 11일 온라인으로 제5회 불교환경연대 녹색사찰대회를 진행하고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솔)과 부산 도림사(주지 정찬), 울산 백련사(주지 원경)를 우수 녹색사찰로 선정했다.

이날 녹색사찰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녹색사찰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녹색사찰 실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우수 녹색사찰로 선정된 안양 한마음선원은 협동조합 지구사랑작은실천을 운영, 교육을 통해 대중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유용미생물군(EM)을 널리 보급, 수질정화에 힘쓴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구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노력하는 모습이 귀감이 됐다는 평이다.

부산 도림사는 보자기를 이용한 천주머니 제작 나눔, 신문지 봉투 사용, 한지등 달기, 인근 사찰과 단체에 환경교육 실시, EM발효액 이웃 나누기, 도심숲공원환경정화캠페인 지속적 실시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귀감이 됐다.

백련사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 매월 환경법회 개최,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전환 기여,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귀감이 됐다는 평가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녹색사찰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불교기후행동에서 지구의날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환경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2022년 11개 신규 녹색사찰과 협약, 현재 총 43곳과 함께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녹색불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녹색사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며 환경법회와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구 생태계를 살리고 부처님 생명존엄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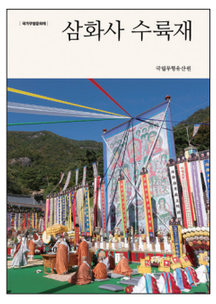
삼화사 수륙재 모든 것을 기록하다

국립무형유산원 '삼화사 수륙재' 백서 발간

수륙재는 우주의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그들의 외로운 넋을 건지고 극락에 왕생하기를 불심으로 기원하는 불교의례이다. 수륙재 외에도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의식은 있으나 그 대상을 개인이 아닌 세상 모든 외로운 존재들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륙재에 초청되는 존재는 불보살부터 외롭게 죽은 영혼까지 차별이 없다. 그래서 수륙재는 무차대회라고도 불린다. 수륙재는 고려시대부터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했던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의 수난을 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규모나 구체적인 목적 등의 차이는 있으나 꾸준히 설행돼 왔다.

이런 가치가 인정돼 수륙재는 2013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를 포함한 3개의 보존회가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최근 〈삼화사 수륙재〉를 발간하고 수륙재의 의의와 역사, 설행의 과정, 삼화사 수륙재의 특성과 전승 현황, 그 가치를 기록해냈다.



수륙재의 수륙은 일차적으로는 물과 뭍을 의미하며 이는 천상과 지상, 명부까지 포괄하는 온 우주를 표현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원을 들어주는 대상과 기원의 대상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로 수륙재의 별칭인 무차대회의 무차별과 함께 의례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삼화사 수륙재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시대 및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도드라진다는 점이다. 천도의 대상으로 초대되는 이들이 자리하는 하단에 놓인 감로탱화에는 과거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현장과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등이 그려져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단의 불보살부터 하단의 유주무주 고혼에 이르기까지 관욕이 행해지며, 방생의식이 주요 절차로 다뤄지는 것과 재가 신도의 동참도 삼화사 수륙재의 중요한 특징들이다.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수륙재의 유래와 역사, 의식문과 그에 따른 절차가, 2장에서는 삼화사 수륙재의 역사와 구조가 기술돼 있다. 3장은 삼화사 수륙재의 설행을 의례와 범패, 작법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했다. 4장은 3장에서 살펴본 설행 과정을 바탕으로 삼화사 수륙재의 특성을 의례, 범패, 작법무로 나누어 기록했다. 5장에서는 삼화사 수륙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경위와 전승현황 및 전망과 가치에 대해 다뤘다. 전승현황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수륙재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 노력하는 보존회의 역할 및 전승 내용이 담겨 있다.

책의 집필은 본지 필진인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과 손인애 동국대 한국음악과 외래교수, 강석훈 국립무형유산원 학예연구사, 강인숙 경상국립대 민속무용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WISE캠 日대학·불교협력 확대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WISE캠퍼스 국제화 및 건학위원회 불교 세계화 사업 추진을 위해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방일해 일본 도쿄 도시대학, 시즈오카복지대학과 사찰을 방문했다. 이 총장은 일본 시즈오카복지대학과 학술교류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도쿄도시대학과 글로벌 고등교육 자원 공유 및 혁신 콘텐츠 교류를 논의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중점 사업인 '불교 세계화 사업' 추진을 위해 시즈오카현 핫타산 손에이지(法多山 尊永寺)와 조동종의 성찰인 카스이사이(可睡斎)를 방문해 주지스님 면담을 통해 동국대 WISE캠퍼스와 불교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신성민 기자


시즈오카대학과 MOU를 맺고 있는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사진 오른쪽).

2023년 정월·음력 2월 윤달

1월 22일 ~ 2월 19일 · 3월 22일~4월 19일

해인사 성지순례

불자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인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인사는 우리나라에서 명실공히 불교의 삼보(三寶)라고 일컫는 佛(쌍둥이 비로자나부처님),
法(팔만대장경), 僧(희랑대사상)을 국보로 보유한 최초의 사찰입니다.
해인사에서 국보로 나투신 삼보 친견의 인연 공덕으로 복되고 희망 가득한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순례 특전 (단체)신청시–일주문에서 장경판전까지 내부관람 (스님의 안내 설명. 공양 제공) ※ 사전 단체접수에 한함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 (055)934-3000 Fax 934-3010